비상경제장관회의
23-15-2
(공개)

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
제4차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
(2023 ~ 2027)

2023. 6. 28.

관 계 부 처 합 동

제 4차('23~'27)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(요약)

1. 추진배경

□ 「**식품산업진흥법**('08.3월 제정)」 **제4조**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5년 단위**로 **기본계획**을 수립해야 함

○ '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(1차: '08, 2차: '12, 3차: '18)

□ 금번 **제4차**('23~'27) **기본계획**은 **코로나19**로 크게 달라진 식품산업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, **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성장전략**을 제시

2. 식품산업 현황

□ **(국내)** **'21년** 기준, 식품산업(제조[149조원]·유통[356]·외식[151]) 규모는 약 **656조원**(농림업 생산액 61.4조원 대비 10.7배)으로 '18~'21년간 **연평균 8.0% 성장**

* '18~'21년간 산업별 평균 성장률(%, 통계청) : 全산업7.4, **식품8.0**, 농림업5.3, 자동차4.6, 기계3.2

○ 코로나19로 인한 **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 영향**('20~'21 기간 연평균 16%↑)

* 온라인 식품 소매 비중(%) : ('17) 9.9 → ('20) 20.8 → ('21) 24.3 → ('22) 27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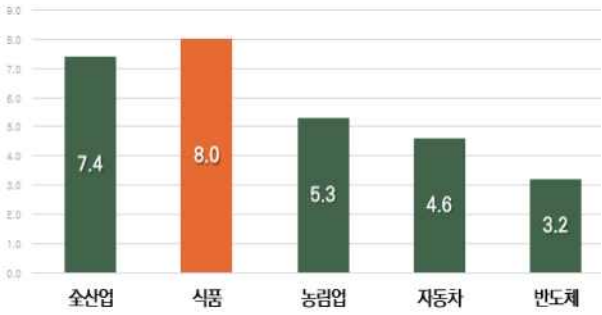
□ **(세계)** **'21년** 기준, 세계 식품[제조업] 규모는 **8.2조 달러**(약 9,840조원)로 '18~'21년간 **연평균 2.1% 성장**

○ 중국, 미국, 일본 順으로 규모가 크며, **우리나라**(1.5%)**는 세계 15위 수준**

< 식품산업 시장 규모('18~'21) >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타 산업 대비 연평균 성장률('18~'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3. 국내외 식품산업 여건 및 전망

□ **(국내) 농식품 수출액 증가 추세*,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**** 등 미래 新산업 영향으로 **농식품산업의 성장이 기대**되는 상황

* 농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8)69.2 → ('20)75.6 → ('21)85.3 → ('22)88.2('18~'22, 연평균 6.2%↑)

**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(조원) : ('17) 27 → ('20) 61('17~'20, 연평균 31%↑),
국내 그린바이오 시장규모(조원) : ('17) 4.1 → ('20) 5.4('17~'20, 연평균 9.6%↑)

○ **1인 가구 증가·고령화** 등의 영향으로 식품 소비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어 **간편식·메디푸드·기능성식품** 등 新식품 시장 성장 전망

○ 다만,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로 **식품기업**들은 **수출을 통한 성장 기회 모색** 및 **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**

○ 또한, 영세한 식품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**최저임금 인상·인력 부족 문제 대응** 및 **R&D·시설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**도 **어려움**

* 최저임금: ('18) 7,530 → ('23) 9,620원, 인력부족률(22.下): 全산업3.4, 식품제조5.7, 외식5.3

□ **(해외) K-Food**가 **한국의 대표 콘텐츠**로 자리매김하였으나, 각 국의 **공급망 정책·식품규제 강화** 등은 **기업에 부담**

* 한식(해외한류실태조사):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(9년연속), 한국연상 이미지 2위(5년연속)

○ 세계 **경기침체 우려 등**으로 농식품 **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**이며,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**원자재 수급 불안**도 여전

○ **EU·미국** 등의 **공급망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***으로 식품기업에 대한 **ESG 경영 도입 요구 증대**

* (EU) 공급망 실사 지침('22.2월), (美)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('22.3월) 등

○ 수입식품에 대한 각국의 **안전 관리 강화**는 무역장벽으로 작용

* (EU) 수입식품 통관 규정 강화('22.1월), (美) 캘리포니아州 Proposition 65 의무화('18.8월)

4. 비전 ·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

비전	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'K-Food'
목표	◈ (산업 성장) 식품산업 규모 : '21) 656 → '27) 1,100조원(연평균 9%↑) ◈ (수출 확대) K-Food 수출액 : '22) 88.2 → '27) 150억불 ◈ (농업 연계) 국산 원료 사용량: '21) 594 → '27) 800만톤

전략 및 과제	5대 추진전략	주요 과제
	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▪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 ▪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	2. K-Food의 경쟁력 강화	▪ K-Food 수출 확대 ▪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 ▪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	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	▪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 ▪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 ▪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	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	▪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▪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	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	▪ 식품 · 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 ▪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▪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▪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추진 체계	◆ 산 · 학 · 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 ◆ 식품 관련 법 · 제도 · 통계 등 인프라 강화

5. 기본계획 주요 내용

[전략1]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한 식품산업의 혁신 성장 도모

□ **(푸드테크)** 지역 단위 푸드테크 **산업 생태계** 및 **해외 수출 거점** 조성

○ **(지역 산업생태계 조성)** 푸드테크를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'(가칭)**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***' 지정·육성('24~)

* '23년 중 「**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**」 **제정**을 통해 근거 마련

- **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*** 중 **지역별 특화 분야** 선정, 지역 내 **기업·대학·연구기관** 간 **공동 R&D, 기술 실증** 등 **네트워킹 지원**

*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, ②식물기반식품 제조, ③간편식 제조, ④식품프린팅, 스마트 ⑤제조·⑥유통, ⑦식품업사이클링, ⑧식품커스터마이징, ⑨친환경포장, ⑩식품로봇

- **푸드테크 계약학과**(석사, '22: 4개 → '27: 12)를 지방대학으로 확대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

< 스마트 제조공정 클러스터 조성 모델(안) >

▸ 경북 포항은 지역 내 **대학**(포스텍), **연구기관**(로봇산업융합연구원, 수중로봇연구소 등), **기업**(뉴로메카, 아워홈, 폴라리스3D 등 10개소) 등이 식품제조.외식기업의 스마트 제조공정 도입을 위한 **산·학·관 협력체계**인 **'K-키친 추진위원회'** 구성('23.4)

○ **(해외진출 촉진)** aT 해외지사 등을 활용, 주요 수출국에 기업 사무공간·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**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** 설치('24~)

□ **(그린바이오)** **분야별 거점** 중심으로 **기능성식품·고령친화식품** 등 **新식품 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**하고, 분야별 **육성방안 수립**

○ **(기능성식품)** **국산 기능성 원료**와 **천연물 소재 정보 및 표준화 방법** 등을 식품기업에 제공하여 **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** 지원('23~)

* 기능성 원료은행('24.2, 익산), 천연물 소재 허브('23~'27, 1개소), 원료·소재 공급센터('24~'28, 2개소)

○ **(고령친화식품)**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**환자 맞춤형 식품 개발 연구** 지원 강화,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 확대 및 우수식품 지정 활성화('23~)

[전략2] K-Food 경쟁력 강화로 '27년까지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

□ **(수출)** **라면·배** 등 수출 유망품목을 **'K-브랜드'**로 육성, **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20개로 확대**('22: 11개)

○ **(유망상품 육성)** 배·딸기·포도 등에 대해 수출국 선호 **新품종 발굴**, 마켓테스트·유통채널 입점 등 지원, **K-Food 공동 로고**(K FOOD) **활용**('23~)

○ **(물류·유통)** 수출통합조직 중심 **공동포워딩***, **저온유통체계** 구축 확대('23~)

* 수개의 수출통합조직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, 물류비 최대 30% 절감 가능

○ **(新시장 개척)** **최우선 전략국** 선정, **현지 로컬마켓 바이어 발굴** 및 기업 매칭, **바이어 초청 상담회**(BKF), **식품박람회 참가** 지원 등 확대('23~)

- 해외 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**'국가별 협의체'를 구성**,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**판로 공동 활용**, **K-Food 공동 마케팅** 등 수출 확대에 협력

< 사례 : '23년 상반기 BKF(Buy Korean Food+) 성과 >

▸ 현지 로컬마켓에서 인지도·구매력이 높은 바이어(136개社)를 초청(미국 SAMS, UNFI 등), 농식품 수출기업(320개社)과 1:1 상담 매칭 지원으로 '22.下 대비 현장계약 실적 6.3배 증가*

* ('22.下) 10건, 3백만불 → ('23.上) 31건, 19백만불(약 250억원)

□ **(한식)** **높아진 한식 인지도를 내수-관광-수출로 연결**하고, 국가별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담은 「(가칭)**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**」 수립

○ **(내수-관광 활성화)** 지역별 농업자원-식품명인-향토음식-전통주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한 **'K-미식벨트'** 조성, **'글로벌 미식행사'** 유치 등('24~)

○ **(식재료 수출)** **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**, **'K-Food 식재료 공급망'** 구축 등('23~)

□ **(외식)** **'외식 서비스 등급제' 도입, 푸드테크 적용 소자본 창업 모델 개발 등**으로 외식산업 활성화

[전략3] 김치·전통주·장류 등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
□ **(김치)**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**종주국 위상 제고**

○ **원료공급 단지 조성**(現 2개소), 배추·무 우수 품종(5종) 개발, **김치 종균 개발**(~'27, 60종)·**보급**을 통한 품질 제고 등 추진('23~)

○ **자동화 공정** 개발·보급을 통한 **생산원가 절감** 및 **정밀센서를 활용한 이물질 발견** 등으로 식품 **안전·위생 제고**('23~)

○ 수출국 **맞춤형 김치 제품** 및 **장기 유통 기술** 개발,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수출 김치에 대한 **국가명 지리적 표시제**(NGI) 등 검토

□ **(전통주)** 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**수출상품화** 추진

○ **자금·컨설팅·R&D 등 창업지원을 확대**하고, 하이볼 레시피 등 다양한 소비 방법을 개발하여 **MZ세대로 소비 기반 확대**('23~)

○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**'건배주 프로젝트'**, 도자기·병 등 **고급 패키징 지원** 및 **해외 한식당 연계** 수출 확대 추진('23~)

○ 국민 정서 고려,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통주 개념·범위 및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범위 조정 등 **「전통주산업법」 개정** 검토

□ **(장류)** **발효 과학화** 등을 통해 **소스 산업으로 육성**

○ **종균 개발**(~'27, 33종)·**보급**을 통한 발효 과학화, 전통 장류 **기능성 규명 연구** 추진, **K-Food 소스 개발** 지원('23~)

< 사례 : 소스산업화센터의 소스 개발 지원 >

▸ 고추장을 활용한 '닭가슴살 소스'를 개발,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에 활용

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12.9억원 → ('22) 14.5

▸ 간장을 활용한 '돼지갈비 소스'를 개발, 축산물 비선호 부위(뒷다리살 등)로 만든 밀키트에 활용

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3억원 → ('22) 20

○ **식품명인**의 장맛 계승·발전, 내외국인 **관광과 연계**, **'장 문화'**를 **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**으로 **등재** 추진('23~)

[전략4] 농업-식품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
□ **(상생협력)** 식품기업-농가 간 계약재배를 지원하는 **'원료중계 플랫폼'** 구축 검토, **우수사례 발굴·정부 포상** 등을 통해 확산 유도('24~)

○ **기업 대상 국산 원료 사용 필요성**(예: ESG 기여)**에 대해 적극 홍보**

< '원료중계 플랫폼' 구축(안)>

상생협력추진단(aT)
- 기업-농가 DB 관리 및 매칭 지원
-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홍보

식품기업(식품산업협회)
- 식품기업별 국산원료 수요(품종,품질,단가)
-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추가 원료 수요

농가(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)
- 생산품목, 품종, 품질(상중하)
- 연간 생산량, 거래 가능 물량, 가격정보 등

< 사례 : 가루쌀 사용과 ESG 경영 >

- 환경(E): 일반 쌀 대비 생육기간이 짧아 탄소 감축에 유리하고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물 사용 감소(습식제분: 쌀가루 1톤 생산시 물 4~5톤 사용)
- 사회(S): 수입 밀(연간 약 250만톤) 일부 대체 가능, 농가와 상생 가능

□ **(국산 원료 공급)** **전략작물직불제** 등을 통한 **원료 생산단지** 확대, **대체식품 원료 DB**를 구축하여 **'디지털 식품 정보 플랫폼'**을 통해 제공('23~)

* 밀/콩 생산단지 : ('22) 51개소(7천ha)/122(7) → ('27) 100(21)/220(14)

** 가루쌀 생산단지 : ('23) 38개소(2천ha) → ('27) 200개소(42천ha)

□ **(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)** **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 및 APC**에 대한 시설·장비 지원 강화로 국산 소재·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('23~)

< 사례 : '뜨란'의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소재·제품 개발 >

- 농업회사법인 ㈜뜨란은 **콩 생산단지(38ha, 140톤)**를 경영하면서, 관내 콩 재배 농가 **150여 곳**과 **계약재배(61ha, 45톤)**를 통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원·선풍 등 국산 품종을 생산하고, 이를 활용해 **식품소재** 및 **대체식품** 개발
- **식물성조직단백(TVP) 등** 수입 의존도가 높은 **대체식품 소재의 국산화**에 기여하고 있으며, **자체 대체식품 브랜드 '미트멀리즘' 출시 예정**('23.下)

□ **(기업 인센티브)**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한 **정책자금 지원 확대** 및 **금리 인하, 정부 포상** 등 추진('23~)

[전략5] ESG 등 변화된 경영 환경 대응 등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□ **(경영지원)** 인력·자금·원재료·R&D 등 중소 식품·외식기업 애로 해소

○ **(인력) 식품업계 인력난 해소**를 위해 **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**, 계약학과 운영 등 **전문인력 양성, 청년 인턴 지원**('23~)

* ①중소·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 고용 한도 상향, ②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, ③방문취업 외국인(H-2)·④재외동포(F-4) 취업 허용업종 확대, ⑤외국인 유학생(D-2) 취업 허용 시간 연장 등

○ **(자금) 원료매입·시설현대화**('23, 1,446억원) 등 자금 지원 확대

○ **(원재료)** 「**해외농업산림법**」 개정('25~), **할당관세, 계약재배** 등 지원('23~)

* (현행) 개발 대상자원이 농산물(바이오에너지 원료 포함)·축산물로 제한 →
(확대) 농산물 가공품 및 식품으로 확대(예 : 식용유, 대두박 등)

○ **(R&D)**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**新산업 육성, 식품 소재 국산화, 식품 품질·안전성 제고** 등을 위한 R&D 지원 강화('23, 380억원)

< 사례 : '더플랜잇'의 식물성 유제품 XILK(씰크) >

▸ '19~'21년 동안 총 7억원의 식품 R&D 사업을 지원받아 국산콩(하영콩*)을 활용한 새로운 단백질 추출·배합 기술을 개발하여 '식물성 우유' 출시('22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)

* 콩의 비린맛과 알레르기, 소화불량 물질을 제거한 신품종

□ **(ESG)** EU 등의 공급망·환경 관리 정책에 대응, **식품기업 ESG 경영 지원**

○ ESG 공시 의무* 대응, **'ESG 경영 가이드라인'** 마련, **ESG 경영 컨설팅**,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**탄소감축 방법론 개발·교육** 등 지원('23~)

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'19) 자산 2조원 이상→('22) 1조원→('24) 5,000억원→('26) 全 상장사
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·G) : (~'24) 자율 → ('25) 자산 2조원 이상 → ('30) 全 상장사

□ **(소비자 신뢰 제고)** 식품 생산단계별 **안전관리 강화**, 식품 관련 정책에 대한 **소비자 참여 확대, 정보제공 강화** 등 추진('23~)

목 차

Ⅰ. 계획의 성격과 추진 경과 ····· 1

Ⅱ.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 ····· 2

Ⅲ. 제3차('18~'22) 기본계획 평가 ····· 11

Ⅳ.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····· 14

Ⅴ. 세부 추진과제 ····· 16
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 ····· 16

2. K-Food의 경쟁력 강화 ····· 19
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····· 24
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 ····· 29
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 ····· 31

Ⅵ. 추진체계 ····· 36

붙임. 과제별 추진 일정 ····· 38

Ⅰ. 계획의 성격과 추진 경과

1 계획의 성격

□ 「**식품산업진흥법**('08.3월 제정)」 **제4조**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**5년 단위**로 **기본계획**을 수립해야 함

○ '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기본계획 수립(1차: '08, 2차: '12, 3차: '18)

< 기본계획 포함 사항(동법 제4조 제2항) >

- ▸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
- ▸ 식품산업 관련 기술 개발·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- ▸ 외식산업 육성, 전통식품의 개발·보급·세계화에 관한 사항
- ▸ 국가식품클러스터,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□ 금번 **제4차**('23~'27) **기본계획**은 **코로나19**로 크게 달라진 식품산업의 여건과 전망을 분석하고, **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성장전략**을 제시

○ 이번 기본계획부터 김치산업진흥법 및 전통주산업법에 따른 **김치산업과 전통주 관련 기본계획** 내용도 포함

2 추진경과

□ **(연구용역)** 제3차 기본계획의 **성과와 한계 분석**, **제4차**('23~'27) 기본계획의 **방향 및 주요 과제 발굴** 등 추진

* 중장기 식품산업 진흥정책 마련(KREI), 미래 유망식품 산업 육성 연구(GS&J)

○ **김치·전통주** 분야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별도 추진

* 제3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, 제3차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

□ **(실태조사)** 국내외 식품산업의 규모·구조·동향, 국내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활용 현황, 소비트렌드 변화 분석 등 실시

* 식품외식산업정보분석(aT), 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(aT), 김치산업실태조사(KREI)

□ **(의견수렴)** 당면과제 논의, 신규 정책 수요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(총 14회) 및 부내 협의*,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추진

* 정책조정협의회(5.3), 주요 과제 관련 실국(식량국·유통국)과 추가 논의 통해 내용 보완

Ⅱ.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

1. 국내 식품산업 현황

1 식품산업 전체

□ **(산업규모)** ‘21년 기준, 약 656조원(제조[149조원]·유통[356]·외식[151], 농림업 생산액(61.4조원) 대비 10.7배)으로, ’18~’21년간 **연평균 8.0%의 성장** 기록

* ‘18~’21년간 산업별 평균 성장률(%, 통계청) : 全산업7.4, **식품8.0**, 농림업5.3, 자동차4.6, 반도체3.2

○ **(식품제조: 149조원)** ’18~’21년간 **연평균 6.8% 성장**(제조업 전체 : 4.2), **제조업 전체 평균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**

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’18) 122.1 → (’19) 126.5 → (’20) 125.9 → (’21) 148.7
↳ 육류가공(18.5%), 건기식(8.6%), 유제품(7.3%), 떡·빵·과자류(7.2%), 간편식(6.5%) 順

- **세계 식품제조 산업 규모***는 ‘21년 기준 **8.2조 달러**(약 9,840조원)로, ’18~’1년간 연평균 **2.1% 성장**

* 중국(23.2%), 미국(15.9%), 일본(4.9%) 順, 우리나라(1.5%)는 세계 15위 수준

○ **(식품유통: 356조원)** 코로나19에 따른 **온라인 유통 성장** 등에 힘입어 ’18~’21년간 **연평균 10.9% 성장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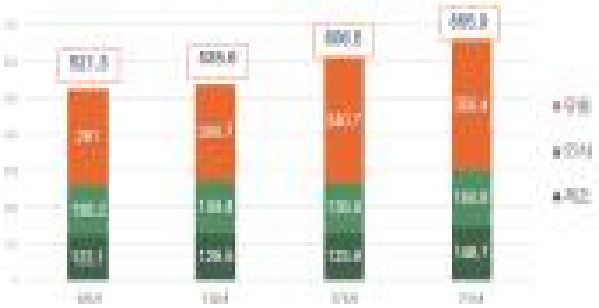
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’16) 244 → (’17) 256 → (’18) 261 → (’19) 265 → (’20) 341→ (’21) 356
↳ ‘16~’19 기간 중 연평균 2.7% 성장, **‘20~’21 기간 중 연평균 16.0% 성장**

* 식품 온라인 소매 판매 비중(%) : (’17) 9.9 → (’20) 20.8 → (’21) 24.3 → (’22) 27.1

○ **(외식: 151조원)** ’18~’21년간 **연평균 3.0% 성장**, 코로나19로 **’20년 시장 축소**(전년비 △3.1%)되었으나, **‘21년부터 회복 추세**(전년비 7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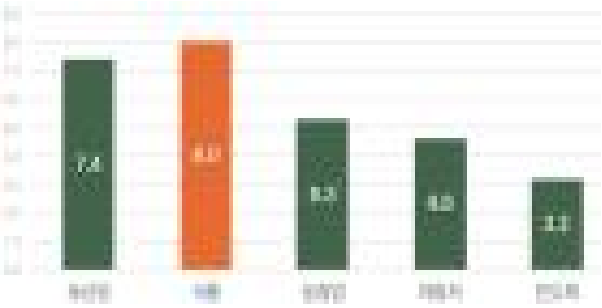
* 산업규모(조원, 통계청) : (’16) 119 → (’17) 128 → (’18) 138 → (’19) 144 → (’20) 140 → (’21) 151
↳ 식품산업 ‘16~’19년 기간 중 성장률 : 식품산업4.3, 제조5.2 유통2.7, **외식6.7**

< 식품산업 시장 규모(’18~’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산업별 연평균 성장률(’18~’21)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□ **(산업구조)** ‘21년 기준, **사업체 수 98.4만개, 종사자 수 267만명**으로 ’18~’21년간 각각 **연평균 5.2% 증가, 1.5% 감소**

○ 다만, 외식 분야 **취업자 수**는 **’22.下부터 회복세**(지역별 고용조사, ‘22)

* 외식업 취업자수(만명) : (‘18.下)204 → (‘19.下)215 → (‘20.下)194 → (‘21.下)197 → (‘22.下)209

○ **사업체의 약 90%**가 매출액 10억원·종사자수 4인 이하의 **영세업체**

○ 타 산업 대비 **상용 근로자**[1년↑] **비중은 낮고, 임시**[1년↓]**·일용직**[3월↓] 근로자와 **자영업자 비중**은 **높은**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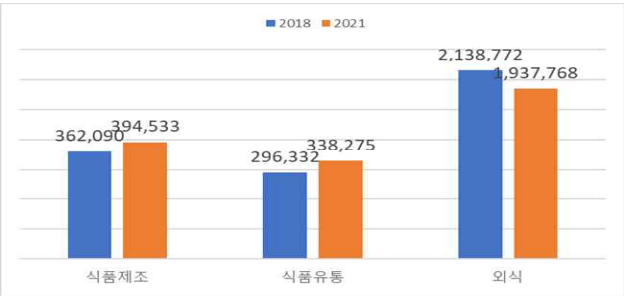
* 상용 근로자 비중(%, ‘20년 기준) : 전산업75.4, 반도체96.3, 자동차94.7, **식품산업49.8**
임시·일용직 근로자 비중(%, ‘20년 기준) : 전산업14.4, 반도체2.5, 자동차3.6, **식품산업28.6**

- **식품산업**은 전체 산업 대비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인해 **인력 부족률이 높음**(全산업: 3.4%, 식품제조: 5.7%, 외식: 5.3%, 22.下 기준)

< 사업체 수 비교 >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< 종사자 수 비교 >



* 출처: 전국사업체조사·서비스업조사(통계청)

□ **(산업동향)** 식품기업들의 **해외투자 확대**, 푸드테크 분야 **스타트업 진출 가속화, 온라인 유통 성장 강화** 추세

○ 식품기업들은 **해외 K-Food 인기 확산**에 따른 **시장 선점**을 목표로 **현지 식품기업 인수*** 등을 통한 해외투자 확대 추세

* CJ제일제당은 미국 식품기업 ‘슈완스’ 인수(‘19) 후 미국 시장 매출 11배 증가(‘22년 기준)

○ 정부의 **R&D 지원 확대**로 **식품분야 기술경쟁력**은 **강화** 추세

* 기술수준(점) : (‘18)79.5 → (‘20)82.4 → (‘22)**86.3**, 기술격차(년) : (‘18)3.7 → (‘20)3.1 → (‘22)**2.4**

○ 컬리 등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는 새벽배송 등으로 우위를 선점, **오프라인 유통업체**들도 **온라인 유통을 강화**하는 등 구조 변화 모색

○ **외식업**은 **코로나19**로 **배달 매출액**이 크게 **증가, 인력 수급 문제 심화**로 조리로봇·서빙로봇 등 **로봇 도입 확대** 추세

* 배달앱 매출액(조원) : (‘19)4 → (‘22)17 / 배달앱 매출 비중(%) : (‘19)3.7 → (‘22)14.6

2 주요 분야 현황

1 **(건강기능식품 등*: 8.6%)**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**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**로 식품제조 분야 중 가장 크게 성장

* **건강기능식품**, 인삼류, 두부류, 커피·차류 및 기타 식품류 등 포함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6.9 → ('19) 7.6 → ('20) 8.2 → ('21) 8.6

○ **건강 증진, 면역력 강화, 필수 영양성분 보충**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 확대*되고 있어, **향후 성장가능성 높음**

* 가구당 연평균 건강기능식품 지출액(만원) : ('18) 22.8 → ('20) 25.3 → ('22) 31.8

2 **(우유 및 유제품: 7.3%)** 출산율 감소 등으로 **우유 소비는 감소**하나 치즈·발효유 등 **유제품 소비는 증가** 추세

* 합계출산율(명) : ('10) 1.23 → ('18) 0.98 → ('21) 0.81, 우유 소비량(kg/인) : ('18) 27.0 → ('21) 26.5, 유제품 소비량(kg/인) : ('18) 80.1 → ('21) 86.1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8.7 → ('19) 8.3 → ('20) 8.1 → ('21) 7.3

3 **(떡 · 빵 · 과자류: 7.2%)** MZ세대 중심 건강한 간식(예. 글루텐프리)에 대한 관심 증가, 쌀 활용 간편식 제품 확대로 **떡류 중심으로 성장**

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7.3 → ('19) 7.4 → ('20) 7.4 → ('21) 7.2

○ 특히, K-Food 인기 확산으로 떡·빵·과자류의 **수출도 증가 추세***

* 떡·빵·과자류 수출 실적(만불) : ('18) 4,314 → ('20) 5,187 → ('22) 6,217(연평균 9.6%↑)

4 **(간편조리식품 등*: 6.5%)** 코로나19로 **외식이 가정 내 소비로 전환****, **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**로 성장세

* 도시락류 제조업, 간편식(즉석섭취식품·즉석조리식품·신선편의식품·밀키트·만두류) 등

** 식품제조업 내 비중(%) : ('18) 4.8 → ('19) 5.6 → ('20) 6.4 → ('21) 6.5
식품유형별 지출 변화(%) : ('19)^{신선}23.0/^{가공}27.9/^{외식}49.1 → ('21)^{신선}26.5/^{가공}29.6/^{외식}43.9

○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**간편식 제품이 다양화***되는 추세

* 레스토랑 간편식(RMR), 식물성 대체식품, 건강 관리 식품(저탄고지 도시락) 등

3 전통식품 현황

(1) 김치산업

□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약 **5.3조원** 규모, 상품 김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, 가정·외식·급식 소비량 감소로 **성장 정체 상태**

* 김치 산업규모(조원) : ('18) 5.1 → ('19) 5.0 → ('20) 5.4 → ('21) 5.3
↳ 상품 김치(조원, 식약처) : ('18) 1.23 → ('19) 1.28 → ('20) 1.34 → ('21) 1.39
가정·외식·급식소비(조원, 추정) : ('18) 3.9 → ('19) 3.7 → ('20) 4.1 → ('21) 3.9

□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**사업체수 838개, 종사자수 1.2만명**으로 '19~'21년간 각각 연평균 **16.6%, 13.9% 증가**

* 사업체수(개) : ('19) 616 → ('20) 635 → ('21) 838
종사자수(명) : ('19) 9,510 → ('20) 10,103 → ('21) 12,343

○ 국내 생산 상품 김치 **대부분은 국산 원료 사용**('21년, 중량의 97.0%), 특히 **배추**는 국내 생산량의 84.8%, **건고추**는 35.4%를 김치 제조에 사용

□ **(산업동향)** 국내 김치 **소비량**은 **감소***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**상품 김치 구입은 증가****, 한류 확산 등으로 **김치 수출도 증가 추세**

* 연간 김치 총소비량(만톤) : ('10)201.5 → ('20)177.5, 1일/1인 평균 섭취량(g) : ('10)109.9 → ('20)88.3
** 상품 김치 구입 비중(%) : ('18)12.2 → ('19)15.4 → ('20)31.3 → ('21)33.1

○ 국가별 차별화된 제품으로 **수출국 다변화**('18, 75개 → '22, 87개) 추세

* (예시) 젓갈을 넣지 않은 비건김치(미국), 저염김치(대만)
** 주요 수출국(비중, '22년) : 일본(43.3%), 미국(20.7%), 홍콩(5.2%), 네덜란드(5.0%) 등

○ 다만, 국내 외식·급식업체는 원가 부담 등의 이유로 **수입김치 사용 증가, 김치 무역수지 적자 지속**('21년 중국 알몸 김치 이슈로 인한 흑자 제외)

<김치 수출입 동향>

단위 : 백만불

	'18	'19	'20	'21	'22
수출액	97	105	144	160	141
수입액	138	131	152	141	170
무역수지	**△41**	**△26**	**△8**	**19**	**△29**

(2) 전통주산업

□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**전통주 등*** 시장은 **1.2조원 규모**로 전체 주류 시장(8.8조원)의 **13.5% 차지**, '18~'21년간 **연평균 3.8% 성장**(전체 주류 △0.8%)

* 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,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, 기타주류 8개 주종

** 국내 주류 시장(억원) : ('18) 90,394 → ('19) 89,413 → ('20) 87,995 → ('21) 88,345
전통주 등(억원) : ('18) 10,659 → ('19) 10,276 → ('20) 10,903 → ('21) 11,924
전통주(민속주+지역특산주, 억원) : ('18) 456 → ('19) 531 → ('20) 627 → ('21) 941

○ 전체 **주류시장 성장 정체**에도 불구, **전통주** 시장은 **온라인 구매 장점**과 코로나19 이후 **혼술·홈술 소비 트렌드**가 결합하며 **지속 성장**

- 특히, 코로나19 기간 동안 젊은층의 **'가심비'** 소비가 더해지며, **증류식 소주·프리미엄 막걸리** 등의 시장이 확대

* 국내 증류식 소주 시장(억원) : ('18) 333 → ('19) 384 → ('20) 448 → ('21) 646
국내 탁주 시장(억원) : ('18) 4,591 → ('19) 4,430 → ('20) 4,706 → ('21) 5,098

○ '22년 **전통주 등 수출액**은 **2,467만불**(약 300억원)로 전체 주류의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, **탁주**('18 대비 26.3%↑)**·과실주**(118.7%↑) **중심**으로 **증가**

* 주류 수출액(억불) : ('18) 4.1 → ('19) 3.8 → ('20) 3.2 → ('21) 3.2 → ('22) 3.6
↳ 주종별 수출액 증감률('18→'22, %) : (소주)△4.3, (맥주)△55.0, **(전통주)39.7↑**

□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**전통주 등 제조면허 수**는 **2,480개**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(2,717개)의 **91.3%**에 해당하며, 이 중 **전통주 제조면허 수**는 **1,401개***

* 민속주 면허(개) : ('18) 64 → ('19) 55 → ('20) 54 → ('21) 52
지역특산주 면허(개) : ('18) 973 → ('19) 1,108 → ('20) 1,219 → ('21) 1,349

□ **(산업동향)** 증류식 소주 및 프리미엄 막걸리에 대한 **청년 창업 확대** 및 유명 연예인의 투자 확대는 **MZ세대의 전통주 소비 붐 조성에 기여**

< 사례 : 청년층의 전통주 창업('한강주조') >

▸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 30대 청년들이 MZ세대를 겨냥한 나루생막걸리* 출시('19.6월)

* 서울에서 생산된 '경복궁쌀'을 이용, 타 막걸리 대비 쌀 함량이 높음

▸ '21년 우리술 품평회 탁주 부문 대상 수상, '22년 20억 매출 달성

(3) 장류산업

□ **(산업규모)** '21년 기준, **1.2조원 규모**로 이 중 **9.5% 수출**(약 1,140억원), '18~'21년간 **각각 연평균 4.7%, 13.2% 성장**

* 장류 산업규모(백억원) : ('18) 104.5→ ('19) 107.2→ ('20) 116.5→ ('21) 119.9

* 장류 수출액(백만불) : ('18) 68.7→ ('19) 74.4→ ('20) 96.7→ ('21) 99.7

□ **(산업구조)** '21년 기준, **사업체 수는 2,003개, 생산량은 72만톤**으로 '18~'21년간 각각 **연평균 0.5% 감소, 2.8% 증가**

* 사업체수(개) : ('18) 2,032 → ('19) 2,047 → ('20) 2,014 → ('21) 2,003
생산량(만톤) : ('18) 66.4 → ('19) 68.5 → ('20) 68.0 → ('21) 72.2

○ 생산이 가장 많은 품목은 **간장**(42.7%), **고추장**(20.5%), **된장**(16.6%) 順

□ **(산업동향)** 장류산업은 **간편 조리 선호, 건강 지향 소비** 트렌드, **한류** 등의 영향으로 **국내외로 지속 성장 중**

○ **김치·떡볶이** 등 K-Food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 증가로 이들을 겨냥한 **매운 소스 제품 개발 가속화 추세**

* CJ제일제당 미국법인은 한국 전통 고추장을 재해석한 '갓추' 출시('21년)

- 특히, 히스패닉이 많은 **미국**에서 **고추장**이 인기*, 현지 **유통업체들도 자체브랜드**(PB)**로 고추장 **제품 출시**

* 기존의 칠리소스, 스리라차를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(Food Business News, 2018)

** (아마존) 키친 고추장, (타겟) 굿앤게더 고추장 바비큐소스 등

< 사례 : 떡볶이 소스 >

▸ '옹고집' 영농조합법인은 조리·보관·유통이 간편한 가루 형태의 떡볶이 소스를 개발, 국내 떡볶이 소스 중 최초로 할랄 인증 획득, '22.6월 인도네시아에 수출 시작

○ **외식업체**들도 **한식 맛의 표준화** 등을 위해 **하나의 소스로 요리를 완성**할 수 있는 **맞춤형 소스**(예. 불고기용 소스) **선호**

2. 대내외 식품산업 여건 전망

□ **(국내)** 국내 식품제조업은 연평균('21~'25) **5.0%** 성장 전망, **1인 가구 증가·고령화** 등이 **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 동인**으로 작용

* 1인 가구 비중(%) : ('18) 29.3 → ('21) 33.4, 1인 가구 수(만명) : ('18) 584.9 → ('21) 716.6

○ **단기적**으로는 코로나19 後 **가치소비 확대 경향**과 고물가로 인한 **가성비 소비 경향**이 동시에 나타나는 **소비 양극화 현상 확대**

○ **중장기적**으로는 **1인 가구 증가**로 **밀키트 등 간편식 시장 더욱 확대***, **고령화**에 따른 **메디푸드** 등의 수요 확대 전망

* 간편식 생산규모(조원) : ('18) 3.7 → ('19) 4.2 → ('20) 4.4 → ('21) 5.0 → ('23p) 7.0
메디푸드 생산규모(백억원) : ('18) 7.7 → ('19) 7.8 → ('20) 10.7 → ('21) 15.3

○ 인구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정체 전망으로 식품기업들은 **수출 확대를 통한 성장을 도모**하거나 **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**할 가능성

* 2021년부터 식품수요가 감소하는 '식품절벽' 발생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65년 인당 칼로리 섭취량은 2020년의 76.4% 수준으로 감소 예상(KREI)

□ **(세계)** 세계 식품제조업은 연평균('21~'25) **5.6%** 성장 전망, **K-Food의 위상 제고**에도 불구, **공급망 문제·식품규제 강화** 등은 **기업에 부담**

○ 세계 **경기침체 우려 등**으로 농식품 **수출 확대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**

○ **EU·미국** 등의 **공급망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***으로 식품기업의 **ESG 경영 도입이 절실**하나, 기업의 인식 수준은 낮은 상황**

* (EU) 공급망 실사 지침('22.2월), (美)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('22.3월) 등

**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응과 관련한 기업 설문조사(대한상의, '23.1) 결과, **원청기업 48.2%**, **협력기업 47.0%**가 **별다른 대응조치 없다고 응답**

○ 수입식품에 대한 각국의 **안전 관리 강화**는 무역장벽으로 작용

- **(EU)** 수입식품 통관 규정 강화('22.1)로 식품안전 부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, 공인분석기관 검사결과서 의무 제출 및 일정 비율(20%) 통관 의무 검사 실시해야 함
- **(미국)** 캘리포니아州 Proposition 65('18.8 의무화)에 따라 허용치 이상의 유해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경고문 라벨 부착 및 유해 물질 명칭 기재 필요

붙임 ESG 도입 관련 국내외 동향

◈ ESG란 **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**의 약자로, 기업 경영에 **사회적 책임**을 다하기 위한 **3가지 핵심 요소**를 의미

□ **(EU)** EU 의회는 **역내·외 기업의 공급망 전반**에 대해 **인권·환경 관련 책임을 의무화**하는 **'공급망 실사 지침**('22.2)'을 연내 표결할 계획

* EU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**27개 회원국은 2년 내 관련 법률**을 **제·개정**해야함
↳ 일부 국가(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 등)는 EU 의회 의결 전에 이미 법제화 추진

○ 대상기업은 자사 공급망 내 **인권·환경** 등에 대한 **부정적 요소를 파악**하여 **예방·완화 조치 실시, 해당 내용을 공개**해야 함

국가	법안명	주요내용
프랑스	**기업 실사 의무법** ('17년 시행) * EU 국가 중 처음으로 실사 의무화	▸(분야) 全 산업 인권(S)·환경(E) 분야 ▸(대상) 프랑스 소재 근로자 5천명 이상 기업 및 전세계 1만명 이상 고용한 프랑스 기업 ▸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최대 3천만 유로 부과
독일	**기업 공급망 실사법** ('23년 시행)	▸(분야) 全 산업 인권(S)·환경(E) 분야 ▸(대상) 독일 소재 근로자 3천명 이상 기업('24년 1천명 이상) ▸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800만 유로, 공공조달 참여 제한
네덜란드	**아동노동 실사 의무법** ('22년 시행)	▸(분야) 全 산업 아동노동(S) 분야 ▸(대상) 네덜란드 소재 모든 기업 ▸(제재) 위반시, 과징금 최대 82만 유로 부과

□ **(미국)** **'기후공시(E) 의무화 규정'** 마련(美 증권거래위원회, '22.3),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*

* ('24) 시총 7억달러 이상 → ('25) 0.75억달러 → ('26) 0.75억달러 또는 매출 1억달러 이상

□ **(국내)** 상장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**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** 및 **지속가능경영 보고서(E·S·G)** 공시 의무 부여('21~, 금융위)

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'19) 자산 2조원 이상(식품기업 11개사) → ('22) 1조원(17개사) → ('24) 5,000억원(22개사) → ('26) 모든 상장사(36개사)
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·G) : (~'24) 자율 → ('25) 자산 2조원↑(11개사) → ('30) 모든 상장사

○ 협력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공시 항목·기준 등은 미확정 상태, 현재 기업들은 다양한 글로벌 기준*을 활용하여 ESG 자율 공시 중

* SASB(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), GRI(글로벌 지속가능보고 이니셔티브) 등

3. 해외 식품산업 정책 동향

□ **(EU)** **'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**(Farm to Fork Strategy)'을 **수립**('20.4), **환경적 측면**을 고려한 **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** 정책 추진 중

○ 식품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행동 강령을 후속으로 발표*('21.7)하는 등 **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**

* **식품 공급망 개선**(온실가스 감축, 산림·토양 보존 등), **식품 생산·유통 개선**(근로 여건 개선, 친환경 포장 등), **식품 생산 방식 개선**(식품 손실 최소화 등) 등

○ 주요 국제기구에서도 식품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**탄소저감, 공정무역** 등 다양한 **식품인증 제도 운영 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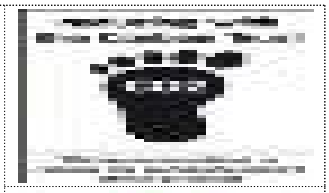
< 사례 : ESG 관련 식품 인증>

▸ **(탄소저감라벨)** Carbon Trust(英)에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, 감축한 제품에 인증 부여

* Reducing Co_2(탄소발자국 매년 감소 제품),
Lower Co_2(탄소발자국이 동종 제품 평균보다 낮은 제품) 등

▸ **(공정무역인증)** 국제공정무역기구(美)에서 제품 생산~유통 과정에서 저 개발국가 생산자를 보호하는지 판단, 인증 부여

* 적용 품목: 커피, 코코아, 목화, 설탕, 바나나 등



□ **(일본)** **'식료·농업·농촌 기본계획'**을 수립('20.3), 인구감소에 따른 식품시장 축소에 대응해 **적극적인 수출 확대 정책** 추진

○ **'30년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 5조엔**(약 367억불) **달성**을 목표('22, 103억불)로 해외 시장 개척, 마케팅, 품질 제고 등을 지원('23년 예산: 약 610억원)

○ **'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'** 시행('20.4)으로 **'수출 추진본부*' 설치**(총괄: 농림수산부 장관), **재정지원 근거** 등 마련

- 이미 '17년에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 산하에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**전담 기관을 설립**(JFOODO, 일본식품해외진흥센터*)하여 운영 중

* (국내) 수출 유망품목 발굴, (해외) 해외 시장조사, 마케팅, 신규 시장 개척 등 추진

Ⅲ. 제3차('18~'22) 기본계획 평가

1 '22년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액 '88.2억불' 달성, 세계 경기둔화·'24년 물류비 폐지 등에 대응한 수출 확대 전략 필요

○ **(성과)**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, 농식품 수출액은 **'18~'22년간** 전체 산업의 수출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**연평균 6%대의 높은 성장** 기록

* 농식품 수출액(억불) : ('18)69.2 → ('20)75.6 → ('21)85.3 → ('22)88.2('18~'22, 연평균 6.2%↑)
↳ 신선(억불) : ('18)12.8 → ('22)15.8(연평균 5.4%↑), 가공(억불) : ('18)56.5 → ('22)72.5(연평균 6.4%↑)

** '18~'22년간 산업별 평균 수출 증가율(%) : 전체3.1, 철강3.6, 수송장비3.0, 반도체0.5, 기계류0.5

- **수출국 다변화**('18, 191 → '22, 196), **1억불 이상 수출 품목*** **증가**('18, 8 → '22, 11) 성과

* ①연초류(9.3억불), ②라면(7.6), ③음료(5.1), ④커피(3.2), ⑤인삼(2.7) ⑥쌀가공식품(1.8), ⑦설탕(1.5), ⑧반려동물사료(1.5), ⑨과자(1.4), ⑩김치(1.4), ⑪분유(1.1)

○ **(과제)** 높아진 K-Food 위상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 악화에 대응한 **K-Food만의 경쟁력 요소** 발굴 필요

* (사례) 수출 딸기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전용 항공기(8개 노선)를 활용한 동남아 수출 확대

2 한식이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음, 높아진 한식 위상에 걸맞는 한식의 글로벌화 전략 필요

○ **(성과)** 한식은 **한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**로, **해외 주요 미식 평가**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는 등 **질적으로 성장**

* 한식(해외한류실태조사) :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도 1위(9년연속), 한국연상 이미지 2위(5년연속)

** 미쉐린 스타 한식당 : ('10) 0개소 → ('18) 19 → ('23) 27

- 「**한식진흥법**」 제정('19.8), 한식문화공간 '**이음**' 조성('22.8), 한식산업 실태조사 **국가통계** 승인('22.10) 등 한식산업 발전 위한 토대 마련의 결과

○ **(과제)** 국내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**미식관광 활성화, 해외 프리미엄 한식문화 전파, 농식품 수출과의 연계 강화 등** 추진 필요

3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전략 수립, 신산업의 성장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필요

○ **(성과)**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성장전략 수립*

*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('22.12.14),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('23.2.16)

<「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」 주요내용 >

- **(기업육성)** **유니콘 기업 30개 육성**을 목표로 1천억 규모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, 정책금융 지원 확대, 식품제조 자동화 공정모델 개발, 외식업계 조리·서빙 로봇 보급 확대
- **(수출확대)** **푸드테크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수출액 20억불 달성**을 목표로 해외시장 정보제공,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, 해외 식품·IT 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 등 추진
- **(기술확보)** **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**를 목표로 민간 R&D 강화 및 범부처 **'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'** 추진, 대학 벤처연구팀 지원 및 계약학과 확대
- **(제도기반)** **'푸드테크 산업 육성법' 제정,** 대체식품 등에 대한 표시·안전 기준 마련 등

○ **(과제)** 푸드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의 중소 식품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**지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** 필요

4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지속 확대 중, 식품기업의 국산 원료 사용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 필요

○ **(성과)** 농업과 기업 간 **계약재배 지원, 국산 농산물 활용 신제품 개발 지원, 전통식품 육성 등**을 통해 기업의 **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**

* 상생협력 참여 업체수(생산자단체+식품기업, 개) : ('18) 87 → ('20) 101 → ('22) 154

* 국산 원료 사용 비중(중량기준, %) : ('13) 31.2 → ('18) 31.3 → ('20) 31.9 → ('21) 31.7
국산 농산물 사용량(만톤) : ('13) 470 → ('18) 560 → ('20) 592 → ('21) 594

○ **(과제)** 지속가능한 농가와 기업 간 상생협력 틀 마련 필요

5 중소 식품·외식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속 지원 중, ESG 등 새로운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필요

○ **(성과)** 코로나19, 러-우 전쟁으로 인한 인력·원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하여 **식품·외식기업**에 대한 다양한 **경영부담 완화 조치 추진***

*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('18년 8/108→ 9/109)·공제한도 확대('19년 5%p↑, '22년 10%p↑), 주요 원재료(식용유, 소·돼지고기 등) 할당관세 적용,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

○ **(과제)** EU·미국 등의 공급망·환경 관리 강화 정책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**식품기업의 ESG 경영 역량 강화 필요**

붙임 식품산업 SWOT 분석

		강점(S)	약점(W)
	* 식품산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식품산업 발전 전략 도출	▸ 매출액 3조원 초과(국내법인+해외법인) 기업 확대('18, 1개소 → '22, 8) 등 기업 규모화로 시장 경쟁력 제고 ▸ AI·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 높은 기술 경쟁력 ▸ K-Food의 위상 제고	▸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 정체('21, 31.7%) ▸ 최저임금 상승·외국인력 수급 제한 등 식품업계 인력난 지속 ▸ 중소 식품·외식기업 비중 높음(약 90%)
		<S-O 전략>	**<W-O 전략>**
기회(O)	▸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 세계 新식품 시장 급성장 ▸ 세계 식품시장 규모 확대 ▸ K-Food에 대한 해외 관심 지속 확대 추세	▸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 ▸ 공격적인 K-Food 수출 확대 전략 수립	▸ 국산 원료·소재 연구개발 확대 등 新식품 분야 국산 원료 활용 확대 방안 마련 ▸ 푸드테크 등 신기술 활용으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▸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거점 기능 강화 필요
		<S-T 전략>	**<W-T 전략>**
위협(T)	▸ 고금리·고물가 등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우려 ▸ 기후변화, 러-우 전쟁 등에 따른 식품 원자재 수급 불안 지속 ▸ EU 등의 공급망 관리 강화로 식품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 증대 ▸ 각국의 식품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	▸ 수출 확대를 위한 K-Food 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요소 발굴 ▸ 안정적인 해외 원료 공급망 구축 ▸ 실시간 해외시장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	▸ 농가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확대 추진 ▸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▸ 식품·외식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인력·원자재 등 정책지원 강화

Ⅳ.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◈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, 수출 확대, 기업의 ESG 경영지원 등을 통해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, 농업과의 동반성장도 강화

1 기본방향

1 (新산업 육성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 외연 확장

○ 푸드테크 핵심 기술 분야별 '(가칭)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' 육성, **그린바이오 거점 확대** 등 지역 중심 **新산업 생태계 조성**

○ 푸드테크 적용을 통한 **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**는 물론, **새로운 상품 개발**로 글로벌 식품시장을 겨냥한 **수출 확대** 도모

2 (K-Food 경쟁력 강화) 수출 · 관광과의 연계로 부가가치 확대

○ **높아진 K-Food의 위상**을 **농식품 수출 확대로 연결**하여 식품기업 및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

○ 국내 한식 자원을 결합한 **미식관광 상품 개발** 및 'K-외식' 경쟁력 강화로 **내수 및 관광 활성화** 도모

3 (농업 연계) 식품산업과 농업과의 동반성장 강화

○ 식품기업-농가 간 **지속가능한 계약재배 체계 구축** 및 대체식품 등 **新식품 원료의 국산화 지원 기반 마련**

○ 젊은 층을 대상으로 **전통식품**(김치·장류·전통주 등) **소비 저변 확대 및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**를 통한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도모

4 (산업 성장기반 공고화) 식품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

○ 중소 식품·외식 기업에 대한 **인력·원재료·세제·자금 지원을 확대**하여 튼튼한 **기업 경영 안전망 확충**

○ 미국·EU의 **공급망 관리 및 환경 관리 강화 정책**에 대응한 **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**

2 비전 ·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

비전	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는 'K-Food'
목표	◈ [산업 성장] 식품산업 규모 : '21) 656 → '27) 1,100조원(연평균 9%↑) ◈ [수출 확대] K-Food 수출액 : '22) 88.2 → '27) 150억불 ◈ [농업 연계] 국산 원료 사용량: '21) 594 → '27) 800만톤

	5대 추진전략	주요 과제
전략 및 과제	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▪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 ▪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	2. K-Food의 경쟁력 강화	▪ K-Food 수출 확대 ▪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 ▪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	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	▪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 ▪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 ▪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	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	▪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 ▪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
	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	▪ 식품 · 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 ▪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 ▪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 ▪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추진 체계	◆ 산 · 학 · 관 기능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식품산업 진흥 ◆ 식품 관련 법 · 제도 · 통계 등 인프라 강화

Ⅴ. 세부 추진과제

1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

1-1.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

◈ **지역 단위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및 해외 진출 거점 조성**
* 10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'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' 육성

□ **(지역 산업생태계 조성)** 푸드테크를 통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 '(가칭)**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***' 지정·육성('24~)

* '23년 중 「**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**」 **제정**을 통해 근거 마련

○ **'27년까지 스마트 제조·대체식품 2개 분야 우선 선정, '32년까지 10대 핵심기술* 全 분야로 확대** 추진

*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, ②식물기반식품 제조, ③간편식 제조, ④식품프린팅, 스마트 ⑤제조·⑥유통, ⑦식품업사이클링, ⑧식품커스터마이징, ⑨친환경포장, ⑩식품로봇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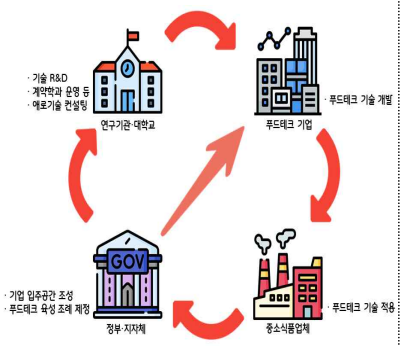
- **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** 중 **지역별 특화 분야** 선정, 지역 내 **기업·대학·연구기관** 간 **공동 R&D, 기술 실증** 등을 위한 **네트워킹 지원**

- 푸드테크 기업 입주 **공간**, 신기술 실증 **연구, 시설·장비** 공동 활용 등 지원

○ **지자체**는 클러스터 육성 **조례 제정**, 푸드테크 기업 유치 등 추진

< '스마트 제조공정' 클러스터 조성(사례: 경북 '포항') >

▸ 경북 포항은 **'K-키친 프로젝트'** 추진 중
- **지자체**: 식품로봇 등 푸드테크 기업 10개소 투자유치
- **지역 대학.연구기관**(포스텍.로봇산업융합연구원 등): 관내 식품 제조.외식기업에 적용할 스마트 제조공정 공동연구
- **포스텍**: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, 푸드테크 기업 및 관내 식품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



○ **푸드테크 계약학과**(석사, '22: 4개 → '27: 12)를 지방대학으로 확대하여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

- 청년농도 푸드테크 기술을 농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**한국농수산대학**에 **푸드테크 교육과정 신규 개설**('24~)

□ **(해외진출 촉진)** '27년까지 푸드테크 **수출액 20억불 달성** 위해 주요국에 **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** 설치 등 추진

○ **aT 해외지사 활용**하여 **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**를 설치하고, 중진공 '글로벌비즈니스센터'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('24~, 중기부 협조)

- 그린바이오 등 타 농식품 분야 수출 희망 기업들도 공동 활용토록 하고, 진출 **국가별 법률·회계·마케팅 등 컨설팅**도 연계 지원

○ **미국·EU** 등 주요국 시장동향 및 첨가물 등 각종 식품규제 관련 **정보제공, 인증 비용·박람회 참가** 등 종합 지원('23~)

□ **(혁신기업 육성)** '27년까지 **유니콘 기업 30개 육성** 위해 **자금, R&D, 판로** 등 **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** 추진

○ **(자금)** '27년까지 **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** 조성*, 범부처 정책금융 및 UAE 국부펀드, 혁신성장 펀드, 정책자금 등 적극 활용('23~)

* 조성목표(억원) : ('23) 100 → ('24) 200 → ('25) 200 → ('26) 250 → ('27) 250

○ **(R&D) 10대 핵심기술 분야**에 대한 **기업 성장단계별 R&D 지원**('23~) 및 범부처 R&D인 **'K-푸드테크 이니셔티브'** 추진 검토('25~)

○ **(판로)** 대형유통업체 **입점, 품목별 자동화 표준모델 개발** 등을 통한 **식품제조·외식업체 자동화 공정·로봇 도입** 지원 검토('23~)

1-2.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

◈ **분야별 거점 등 중심 新식품 소재 발굴~제품화까지 全 주기 지원체계 구축**

* 기능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산업 규모 : ('20) 0.7조원 → ('27) 1.3조원

□ **(기능성식품)** **기능성 및 천연물 소재**를 식품기업에 제공, 관련 시장 활성화

○ **(기능성 원료) '기능성 원료은행'**('24.2월 완공, 국가식품클러스터)을 통해 국산 기능성 원료 정보제공 및 분양, 제품화 등 지원('23~)

* 국산 기능성 원료 DB(누적, 품목수) : ('22) 4 → ('23) 8 → ('27) 30

< 기능성 원료은행 체계도 >

농가 — 원물 수급 MOU 체결 → **기능성 원료은행** → 원료 분양 — 식품기업

- ▸ 기능성 원료 생산-비축-분양
- ▸ 기능 성분 함량 정보 DB화·제공
  - * 품목·품종, 생산지, 표준화 공정 등

※ 국가식품클러스터 기 보유시설을 활용, 원물 조달, 소재 탐색, 기능 규명, 시제품 생산 등 지원

○ **(천연물) 천연물 소재 허브**('23~'27, 1개소), **원료·소재 공급센터*** ('24~'28, 2개소)를 통해 천연물 소재 발굴 및 대량공급 체계 구축

* 식품기업이 스마트팜에 투자하여 원료 작물 생산 농가에 분양하는 체계 검토

□ **(고령친화식품 등)** **환자 맞춤형·고령자용** 식품 개발 지원 강화

○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환자 맞춤형 식품 개발 연구지원 강화('23~)

< 사례 : 감귤 부산물 활용 면역 활성 제품 개발 >

- ▸ (주)비케이바이오에 '16~'18년간 총 7.8억원 식품 R&D 사업 지원
- ▸ 감귤 껍질에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 전환 기술을 적용하여 다당체의 환자 면역력 향상 물질 개발
- ▸ 14개 제품 출시, 특허 6건 등록, 매출 15.1억원 달성('22)

○ **고령친화식품 효능 검증 및 시장 확대**를 위한 **지역 연계 실증 사업*** 확대, '고령친화우수식품' 지정 활성화('23: 122제품 → '27: 700)

* 고령친화우수제품 활용 식단 제공 후, 건강지표 분석('22: 전북 전주 → '23: 서울 서초, 충남 태안)

□ **(新식품 소재)**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**식물·미생물·곤충** 등 다양한 **新식품 소재 발굴·상품화** 지원

□ **(분야별 대책 수립)** 그린바이오 기술을 식품 분야에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**기능성식품** 등 **분야별 육성방안** 수립('24~)

2 K-Food의 경쟁력 강화

2-1. K-Food 수출 확대

◈ **'27년까지 농식품 수출액 150억불 달성**

* 농식품 수출액 : ('22) 88.2억불 → ('23) 100억불 → ('27) 150억불

* 1억불 이상 수출 품목 : ('22) 11개 → ('27) 20개

□ **(유망상품 육성)** 배·라면 등 수출 유망상품을 'K-브랜드'로 육성

○ **(신품종 발굴)** 베트남·홍콩 등 우리 농산물 선호가 높은 국가별로 **수출 유망품종***을 발굴·개발하여 농가에 보급('23~)

* 예: (배) 슈퍼골드, 신화, 창조, (딸기) 비타베리, 하이베리, (포도) 홍주씨들리스 등

○ **(상품화 지원)** 수출국별 **마켓테스트, 포장 개선, 유통채널 입점** 등 **패키지 지원* 강화**('23~)

* 해외시장조사, 포장디자인 개발, 온·오프라인 판촉, 해외인증 등록, 샘플 통관·운송 등 총 20개

- **인삼·김치** 등은 **현지 기능성 표시 등록, 쌀가공식품**은 **글루텐프리 인증** 확대 등을 통해 프리미엄 상품으로 수출토록 지원

○ **(K-Food 로고 사용)** 타국 유사제품에 대응, **배·딸기·고추장** 등에 대해서는 **K-Food 공동 로고**(K-Food) **활용**으로 차별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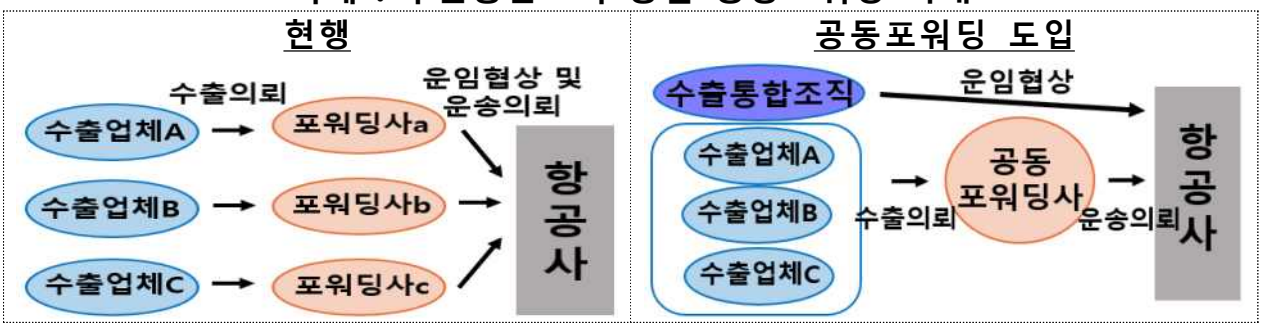
□ **(품질 제고)** 유망품목에 대한 **저온 물류·유통체계 확충** 등 지원

○ **(물류)** 생산자와 수출업체간 공동 마케팅 법인인 '**수출통합조직**'을 확대*('22: 10개 → '27: 20)하고, 이들 중심으로 **공동포워딩**** 추진('23~)

* ('22) 딸기, 파프리카, 버섯, 포도, 배, 감귤, 키위 등 10개 → ('23~) 사과, 배추 등 추가

** 수개의 수출통합조직 공동으로 운송사와 운임 협상, 물류비 최대 30% 절감 가능

< 사례 : 수출통합조직 중심 공동포워딩 확대 >



○ **(유통)** 입항~최종 소비지까지 **저온유통체계**(콜드체인 등) **구축 확대**, 선박 운송이 많은 배·토마토 등에 **CA컨테이너 기술*** **적용 확대**('23~)

* 대기 환경 조절을 통해 농산물 호흡·미생물 생장 등을 억제하여 농산물 선도 유지

□ **(신규시장 개척)** 최우선 **전략국***(8개국) 및 주요 수출국에 대한 **로컬·온라인 마켓** 등 신규 **바이어 발굴, 수출기업 매칭** 등 추진

* 수출 확대 가능성, 현지 여건, 한류 영향 등을 고려(독일, 영국, 캐나다, 멕시코, 호주 등)

○ **국제 식품박람회** 등 참가('23, 24회), **바이어 초청 상담회**('23, 2회) 및 **K-Food Fair 개최**('23, 7회), **안테나숍*** 증설 등을 통해 거래선 확대

* 농식품 수출이 적은 지역에서 농식품 판매 및 현지 수요에 맞는 품목 발굴 위해 추진

- **시장개척요원**(110명/年)을 통해 시장조사 등 신규시장 진출 여건 조성('23~)

< 사례 : '23년 상반기 BKF(Buy Korean Food+) 성과 >

▸ 현지 로컬마켓에서 인지도·구매력이 높은 바이어(136개社)를 초청(美 SAMS, UNFI 등), 농식품 수출기업(320개社)과 1:1 상담 매칭 지원으로 '22.下 대비 현장계약 실적 6.3배 증가*

* ('22.下) 10건, 3백만불 → ('23.上) 31건, 19백만불(약 250억원)

○ 주요 수출국 온라인몰에 **'한국식품관' 확대**('22: 11개소 → '23: 15), **대규모 한류 행사**(KCON 등) 및 **한류 드라마**와 연계한 **홍보** 강화(문체부 협업)

○ 해외 진출 식품기업 중심으로 **'국가별 협의체'를 구성**,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**판로 공동 활용**, **K-Food 공동 마케팅** 등 수출 확대에 협력

○ 검역·통관·라벨링 등에 대한 **현지 법률자문**('23: 36개국·117개 기관) 및 **유기농·할랄·코셔** 등 국가별 **인증 지원**(20백만원/건)

□ **(자금지원)** 수출보험, 원료매입 등 기업 필요 **자금지원 확대**

○ **범부처 정책금융, 혁신성장 펀드, 농식품 수출 전용 펀드**(200억원) 등을 활용,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 적기 공급('23~)

○ 수출기업 대상 **원료매입·시설 현대화** 등 지원 확대('23, 4,584억원)

* 수출실적, 국산 농산물 사용실적 등을 평가, 우수기업에 금리 인하 인센티브 제공(△2%p~△3%p)

○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한 **수출보험 지원 확대**('22: 8천 → '23: 1억원)

2-2.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의 우수성 홍보 강화

◈ 외국인의 한식 인지도 제고: ('22) 57.6% → ('27) 70%

□ (국내) '27년까지 'K-미식벨트' 15개 조성 등을 통해 **미식관광 활성화**

○ (K-미식벨트) 지역별 **농업자원-식품명인-향토음식-전통주** 등 한식 자원을 결합하여 **미식관광 상품***으로 개발('23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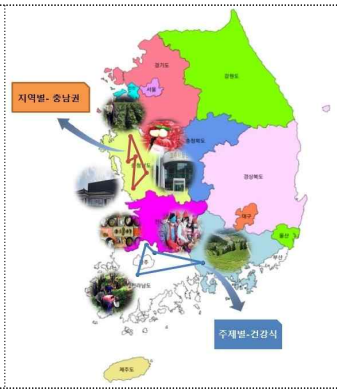
* 한식문화공간(서울), 김치타운(광주), 찾아가는 양조장(전국 50개소), 대한민국식품명인(81명) 등을 활용, ▲김치 ▲전통주 ▲장류 ▲지역 특산물 등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

- **민간여행사**에 **정보제공, 지자체**를 통해 K-미식벨트 **품질 관리** 추진

< 'K-미식벨트' 예시 >

▸ **(지역별-충남권)** 배추밭 경관(당진) - 토굴 새우젓 박물관(광천) - K-바베큐 체험(홍성) - 고추박물관 관람, 김치담그기 체험(청양) - 한산 소곡주 시음 및 제조 체험(서천)

▸ **(주제별-건강식)** 장담그기 체험(전남 담양) - 녹차밭 관람, 다도체험(경남 하동) - 봄나물 수확 체험, 팜스테이(전북 남원) - 사찰음식 및 템플스테이 체험(전남 장성 백양사)



○ (지원체계) **한식 체험 프로그램** 개발, **한식 해설사** 양성 등 추진('23~)

- **K-콘텐츠와 연계된 메뉴*** 중심으로 **체험 프로그램 개발,** 한식문화공간 '이음' 內 **쿠킹 클래스** 운영 및 **한국 식예절 강의 확대** 등

* 영화 '기생충'의 채끝살 짜장라면, 드라마 '이상한 변호사 우영우'의 김밥 등

- **식품 관련 대학**에 **한식문화 교육과 외국어교육** 등을 지원하여 **한식 전문 해설사**를 양성, 외국인 미식 관광 활성화 지원

□ **(해외) 우수 한식당 지정**을 **확대**하여 한식의 고품격 이미지 확산, 한식 산업 성장이 **식재료 수출로 연결**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

○ **(우수 한식당)** 세계 주요 도시 중심 **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**('23: 8개 → '27: 80), 도시별 **'Flavors of K-Food'** 발간 및 홍보('26~, 관광공사 협조)

○ **(식재료 수출)** 한식당이 많이 분포된 도시 중심으로 수출기업-현지 바이어-한식당을 연결하는 **'K-Food 식재료 공급망'** 구축('24~)

- **aT 해외지사**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현지 바이어 정보를 한식당에 제공, 한식당은 **한식당 협의체**를 통해 식재료 수주물량 규모화·공동구매 추진

- **소스산업화센터**(국가식품클러스터 內)를 통해 **외국인 선호 한식메뉴**에 대한 **소스 레시피**를 개발하여 **식품기업에 제공**, 수출 품목으로 육성('23~)

【K-Food 식재료 공급망 구축(안)】

▸ 뉴욕, 파리, 도쿄, 싱가폴 등 주요 도시에 한국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벤더와 한식당을 연결하는 식재료 공급망 구축

□ **(홍보전략) 스타셰프**를 통해 한식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, K-콘텐츠와 연계하여 **국가별·세대별**로 차별화된 **한식 홍보 추진**

○ 수출 전략품목별로 **스타셰프를 매칭**하여 **한식 홍보**를 추진, 전세계 한식 미쉐린 스타셰프(27명)를 활용하여 **'글로벌 미식행사*'** 유치 추진('24~)

* 예: ('24)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, ('26)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

○ 높아진 한식 위상에 걸맞는 국가별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 등을 담은 「(가칭)**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**」 수립('23)

2-3.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

◈ **외식서비스 등급제 도입,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경영모델 확산**
* 매출 1조 이상 외식기업 ('22) 2개소 → ('27) 5개소

□ **(국내)** 서비스 품질 제고, 푸드테크 적용 등을 통한 외식 경쟁력 강화

○ (서비스 품질 제고) 위생평가 중심의 안심식당 제도를 **음식 품질·고객 서비스 평가** 중심의 **'서비스 등급제'**로 개편('24~)

* 메뉴 품질·독창성, 고객 서비스, 청결, 편의시설, 안전시설, 국산 원료 사용 등을 평가

- 최우수 등급을 받은 외식업체에는 **정책자금**(시설 현대화, 원료매입, 경영 컨설팅) **우선지원**, 지도 앱(네이버 협업)과 연계한 **홍보** 집중 지원

○ (푸드테크 적용) 식품로봇 등을 활용한 **푸드테크 창업모델 개발***로 소자본 창업 활성화, 공유주방·푸드코트 등 **창업 공간 지원** 확대('23~)

* **경영·조리·서비스** 등에서 **표준화**가 가능한 **신규 프랜차이즈** 등에 우선 적용

- 외식업체 인력난 완화를 위해 **자동 주문·결제 시스템, 서빙·조리 로봇** 등 지원 강화

< 사례 : 외식업계 푸드테크 도입 확산 >

▸ 코로나19 이후 외식업 인력난 가중으로 로봇 도입 확대 추세

▸ 소상공인에게 무인 키오스크, 서빙·조리 로봇 등 지원 중
('20년~, 예산 313억원(국비 70% / 자부담 30%), 중기부)

* 키오스크 등 저가 장비 : 최대 5백만원,
조리·서빙로봇 등 고가장비 : 최대 15백만원

□ **(해외)** 외식기업 해외 진출 촉진 위해 **해외 시장 정보제공·자금지원 강화**

○ (자금지원) 해외 진출 기업에 메뉴개발, 마켓테스트, 식재료 조달,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**'해외 진출 바우처' 지원 강화**('23: 10개소)

○ (정보제공) K-Food 인기가 높은 미국·아세안 중심으로 선호메뉴, 노동·회계·건축 등의 법률정보, 식재료 조달 방안 등 정보제공('23~)

□ **(추진체계)** 산·학·관 **'외식산업 발전포럼'**을 통해 외식 분야 현안 과제 발굴,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

3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
3-1.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

◈ **김치를 세계인의 건강 발효식품으로 육성**
* 김치 수출액 : ('22) 1.4억불 → ('27) 3.0억불
* 우수 김치 종균 개발(누계) : ('22) 27종 → ('27) 60종

□ **(원료조달)** 고품질 김치 원료의 안정적 조달체계 구축

○ 저온저장기능 등을 갖춘 **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**('23~)

* 현재 전남 해남, 충북 괴산 2개소 추진 중('22~'25)

- 중소 영세업체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공공형 모델로 운영

○ **'27년**까지 기후변화에 영향이 적은 **배추·무 우수 품종 5개 추가** 개발

* 내재해성·내병성 배추·무 개발 품종 : ('12~'22, 누적) 10개 → ('25) 12 → ('27) 15

□ **(생산성 제고)** 업체 규모별 **김치 생산 자동화 공정 모델 개발**, 절임염수 재처리 설비 등 개발·보급으로 **생산원가 절감** 도모*

* 김치 생산원가 : (현재) 3,152원/kg → (자동화 도입시) 2,184원(968원/kg↓, △30%)

○ **정밀센서**를 활용한 **이물질 사전 차단 기술 개발·보급**으로 식품 위생 및 안전 제고

□ **(발효의 과학화)** 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확대로 품질 제고

○ **'27년**까지 **김치 종균 60종**('22: 27종) 개발, **중소업체 수출김치**의 **90%**('22: 18.4%)까지 종균 보급 확대, **품질예측 AI 알고리즘** 개발

□ **(수출 경쟁력 제고)** 수출국 **맞춤형 김치 제품** 및 **장기 유통기술**을 개발하고, **종주국**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위한 **홍보** 강화

○ **(현지화)** 일본 대상 **기능성 표시 제품개발 확대**(現, 14종 → '27, 39), 미국은 **비건김치**, 대만은 **저염김치**로 시장 공략('23~'27)

○ **(장기 유통기술)** 수출 김치 숙성 지연을 위한 **장기유통 기술 개발** 및 과냉각 저장고를 활용한 **유통 표준 시스템 개발**(~'27)

○ **(종주국 위상 제고) 해외 '김치의 날' 제정 확대**('22: 美 8개 지역* → '27: 15), **K-콘텐츠를 활용**한 김치 문화 홍보 강화

* 美 캘리포니아, 버지니아, 뉴욕, 워싱턴 D.C., 텍사스, 조지아, 미시간, 메릴랜드

□ **(소비기반 확대)** 미래 세대를 겨냥한 **교육·체험 기회 확대**

○ **식품명인** 교육 영상과 교육용 김치 밀키트를 활용한 **학생 대상 체험교육** 강화, **급식용 김치 레시피 개발·보급*** 확대('23~)

* 레시피 개발 후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에 게시하여 어린이집·유치원·학교 활용 유도

< 사례 : 미래 세대 대상 김치 교육 >

▸ 지자체·김치업체·김치협회가 협업, 학생 등을 대상으로 '찾아가는 김치교실('22, 49회)'을 운영하여 김치 문화를 적극 홍보

□ **(제도개선)** **국산 김치**의 **위생·품질·경쟁력 제고**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○ **(HACCP 확대)** 수입 김치와의 차별화를 위해 **모든 국산 김치류 대상 HACCP 적용***을 위한 **컨설팅 지원 추진**('25~)

* 현재 배추김치에만 적용(국산: '14.12월 의무화 / 수입: '21.10~'24.10월까지 단계적 적용)

○ **(품질 표시제)** 전통식품 및 KS 김치규격에서 **매운맛 표시기준 개정** 추진('24~), **배추김치 영양성분**(나트륨·열량 등) **표시제도** 단계적 확대*

* ('22)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 → ('24) 50억원 이상 → ('26~) 전체

○ **(수출지원) 농업계·김치업계·소비자**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, 수출 김치에 대해 **국가명 지리적 표시제***(NGI) **등 다양한 지원 제도 검토**('23~)

* 김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: 국내 생산 주원료(배추, 무 등)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가공한 김치를 대상으로 「농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라 국가에서 인증

3-2.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

◈ **銘酒 육성 및 한식과 연계한 수출 상품화**

* 전통주류 매출액 : ('21) 1.2조원 → ('27) 2.0조원

* 전통주류 수출액 : ('22) 23.7백만불 → ('27) 50백만불

□ **(산업 성장지원)** 명주 개발을 위한 역동적인 **산업생태계** 조성

○ **(자금)** **'27년까지 400억원 목표로 전용 펀드 조성**, 500억원 규모 저리융자 자금 집중 지원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('24~)

○ **(창업교육)** 전통주 교육기관*을 **'창업지원센터'**로 지정, **술 제조법·주류제조면허 취득 절차** 등의 정보제공·교육 지원('24~)

* 한국식품연구원, 서울벤처정보대학교, 신라대학교, 대경대학교, 한국가양주연구소

○ **(컨설팅)** 제품개발, 브랜딩, 세무·회계, 홍보·마케팅, 판매 등 **창업 후 全 과정에 대한 컨설팅** 지원 확대('24~)

○ **(R&D)** **프리미엄 전통주 개발**을 위한 제조 단계별 **연구개발** 강화('23~)

* (원료) 누룩 균 배양기술, (발효·숙성) 한국식 오크통 개발 및 숙성 기술 연구, 증류주 장기 숙성기술, (유통) 후발효 억제 등 생막걸리 유통기술 등

○ **(판로)** **'전통주 마시는주**(Week)' 기획을 통한 대대적 판촉,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**지역양조장 홍보** 등 추진('23~)

□ **(국내 소비확대)** '전통주 등'을 **지역 문화·관광상품**으로 육성

○ 산·관·학 협력체계 구축,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 연구 등을 통해 **'막걸리 빚기'**를 **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**으로 등재 추진('24~)

○ **'27년까지 '찾아가는 양조장'**을 **전체 전통주 양조장의 10% 수준으로 확대**('22: 50개소 → '27: 75)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육성

○ 지자체와 협력, 전통주를 **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**으로 활용 유도

*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플랫폼에 총 54개 지역 대표 전통주가 답례품으로 게시 중

○ 전통주를 사용한 **하이볼 레시피 개발** 등 MZ세대의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 소비 방법 개발 및 홍보('23~)

< 사례 : 전통주 활용 칵테일 레시피 >

▸ 국가자격시험인 '조주기능사' 실기시험에 전통주 칵테일 레시피 5개 포함(안동소주, 진도홍주, 감홍로 등 활용)

▸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, 대한민국 식품명인주 칵테일 경연대회 등 전통주 칵테일 대회를 통해 다양한 레시피 개발·홍보

□ **(수출 활성화) 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**를 통해 전통주 수출 확대

○ 재외공관, 해외 문화홍보원 등 주요 외교 행사에 전통주를 활용하는 **'건배주 프로젝트'** 추진('23~, 외교부 협조)

* '건배주 가이드북'을 제작, 세계 주류품평회 수상酒 및 한식과의 페어링 정보 등 제공

○ **도자기·병 등 고급 패키징 지원** 및 해외 한식당 연계 판로 개척('23~)

* (사례) 뉴욕 소재 '서울살롱' 레스토랑에서 한식과 전통주 칵테일 등 판매

○ **전통주와 어울리는 한식**으로 **'해외 한식 요리경연대회**(12개국)'를 개최하여 우리술에 대한 해외 인지도 확산('23~)

○ '전통주 갤러리'를 모델로 **해외 상설 체험장 조성** 검토('23~)

* '23년 일본 시범사업 후 미국·태국·베트남 등으로 확대 예정('24, 2개소 → '27, 5)

< 사례 : 전통주 갤러리 >

▸ 시음(외국인 대상 2회/日) 및 체험, 전시(전통주 품평회 수상작, 찾아가는 양조장 제품 등 300여 점), 창업 희망자 대상 컨설팅 실시

▸ 연평균 1.4만명 방문으로 한국의 술 문화와 다양한 전통주 홍보

□ **(제도 정비)**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「**전통주산업법**」 **개정** 검토

○ **(전통주) 국내 농업과의 연계성, 국민 정서** 등을 종합 고려, 전통주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**개념 및 범위 재설정 검토**

○ **(지역특산주)** 지역특산주 산업 육성을 위해 **주원료 外 원료 조달 범위** 및 **지역특산주 범위 설정** 등 필요한 과제 검토

3-3.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

◈ **발효의 과학화, 문화적 가치 확산 등을 통해 전통 장류의 산업화 촉진**
* '27년까지 전통 장류에 기반한 한식 소스 165개 제품 개발

□ **(장류의 산업화)** **'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'**(순창)를 통해 '27년까지 **우수 종균 33종**('22: 16종)**을 개발·보급**하여 전통 장류의 산업화 지원

○ 우수 종균을 받은 중소 장류업체 대상 **발효기술 컨설팅, 제품 품질 분석** 등을 지원하여 제품의 경쟁력 제고

○ **전통 장류의 기능성 규명 연구*** 등을 통해 장류 소비시장 확대

* 전통 장류 섭취에 따른 장 건강 개선 및 항비만·항염증 등 효과 규명

□ **(소스 산업과 연계)** **'소스산업화센터'**(익산)를 통해 전통 장류를 활용한 **한식 소스 개발, 시제품 생산** 등 지원

○ **국가별** 우리나라 **전통 장류의 맛**(짠맛·매운맛 등)**·향 등**에 대한 **선호도·민감도**를 조사하여 식품기업에 **제공**('24~)

< 사례 : 소스산업화센터의 소스 개발 지원 >

▸ 고추장을 활용한 '닭가슴살 소스'를 개발, 식물성 대체식품 및 간편식에 활용
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12.9억원 → ('22) 14.5

▸ 간장을 활용한 '돼지갈비 소스'를 개발, 축산물 비선호 부위(뒷다리살 등)로 만든 밀키트에 활용
* 소스 활용 제품 매출액 : ('21) 3억원 → ('22) 20

□ **(문화적 가치 확산)** **식품명인**의 장맛을 계승·발전시키고, 내외국인 **관광과 연계**하여 우리나라 장문화가 K-Food의 근원임을 적극 홍보

○ **식품명인**(13명)의 **장류 제조법을 DB화**하여, **전수자**를 **육성**('23, 8억원)

- 지역별 **'장 문화 지도'**를 제작, **K-미식벨트**와 연계하여 **관광상품화**

○ 한식문화공간 '이음' 內 **'식품명인체험홍보관' 운영**으로 내·외국인 대상 장류 문화 체험 기회 제공 확대

○ **'장 문화'**를 **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**으로 **등재** 추진('23~)

4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◈ 농업-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

□ **(상생협력 강화)** 식품기업과 농가 간 '**원료 중계 플랫폼**' 구축 검토

< '원료중계 플랫폼' 구축(안)>

상생협력추진단(aT)
- 기업-농가 DB 관리 및 매칭 지원
-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홍보

식품기업(식품산업협회)
- 식품기업별 국산원료 수요(품종,품질,단가)
-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추가 원료 수요

농가(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)
- 생산품목, 품종, 품질(상중하)
- 연간 생산량, 거래 가능 물량, 가격정보 등

○ **(수요 DB) 식품산업협회** 주관으로 **식품기업 대상 국산 원료 수요를 파악**하여 DB화(물량, 가격, 사용시기, 품질 요구사항 등)

- **기업 대상 국산 원료 사용 필요성**(예: ESG 기여)**에 대해 적극 홍보**

< 사례 : 가루쌀 사용과 ESG 경영 >

- 환경(E): 일반 쌀 대비 생육기간이 짧아 탄소 감축에 유리하고 건식 제분이 가능하여 물 사용 감소(습식제분: 쌀가루 1톤 생산시 물 4~5톤 사용)
- 사회(S): 수입 밀(연간 약 250만톤) 일부 대체 가능, 농가와 상생 가능

○ **(공급 DB) 농협·지자체** 중심으로 **계약재배 희망 농업법인, 품목 등**(품종, 가격, 출하시기 등)의 정보 DB화

- **식품기업-농가** 간 **장기**(예. 2년 이상) **계약재배** 시 가격 변동성에 따른 농가의 **손실 일부 보전 검토,** 계약의 지속가능성 제고

* 국내산 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김치에 우선 적용하고, 타 품목으로 확산 검토

○ **(중계 기능)** aT에 '**상생협력추진단**'을 구성하여 식품기업과 농가 간 계약재배 매칭 지원, **우수 사례 발굴·홍보** 등 추진

□ **(국산 원료 공급)**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**생산단지 조성** 확대

○ **(밀·콩·가루쌀) 전략작물직불제**('23~, 최대 250만원/ha)를 통해 **생산단지** 조성 확대, 대두 등 **총 30종의 대체식품 원료** DB 구축·제공(~'27)

* 밀/콩 생산단지 : ('22) 51개소(7천ha)/122(7) → ('27) 100(21)/220(14)

** 가루쌀 생산단지 : ('23) 38개소(2천ha) → ('27) 200개소(42천ha)

○ **(감자) 식품기업과 계약재배**하는 우수 감자 **생산단지에 '23년부터 시설·장비 지원, 가공용 우량종자 보급** 확대 등 추진

□ **(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)** **식품 소재·반가공 기업** 및 **농산물 산지유통센터**(APC)를 활용한 국산 소재·반가공 제품 유통 활성화

○ **식품소재·반가공 기업**에 **시설·장비 지원을 강화**('23, 25.2억원)하고, 농가와 소재 기업,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시 사업평가에서 가점 부여

○ **산지유통센터**에 전처리 시설 등 지원 강화, 식품기업과의 거래 활성화 유도

< 사례 : '뜨란'의 국산 콩 활용 대체식품 소재·제품 개발 >

▸ 농업회사법인 ㈜뜨란은 **콩 생산단지(38ha, 140톤)**를 경영하면서, 관내 콩 재배 농가 **150여 곳**과 **계약재배(61ha, 45톤)**를 통해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원·선풍 등 국산 품종을 생산하고, 이를 활용해 **식품소재** 및 **대체식품** 개발

▸ **식물성조직단백(TVP) 등** 수입 의존도가 높은 **대체식품 소재의 국산화**에 기여하고 있으며, **자체 대체식품 브랜드 '미트멀리즘' 출시 예정**('23.下)

□ **(기업에 대한 인센티브)** 국산 원료 사용 우수기업에 대해 **정책자금 금리 인하, 정부 포상** 등 지원 확대

○ **원료매입자금 금리 인하**(△1.0%p), 국산 원료를 사용한 **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**(업체당 20백만원 → 40), **식품 R&D** 참여시 가점 부여('23~)

-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, 기업의 **국산 원료 구매실적 평가 강화**

○ **정부 포상, 상생협력 사례 홍보**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

* **'대한민국 식품대전'**(매년 11월)에서 **'Agro-Biz 동반성장 우수기업'**으로 선정, 포상

5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◈ **변화된 환경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능력 강화**

* 식품기업 ESG 경영 도입(코스피 상장사 기준) : ('22) 12개사 → ('27) 전체(36개사)

5-1. 식품 · 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

□ **(인력)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** 및 新산업 분야 **전문인력 양성**, 생산인력 지원 등을 통한 **식품 ·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**

○ **(외국인력)**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**외국인력 규제 완화**,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**외식 인력 수급 동향** 및 **외국인력 필요 분야 발굴** 등 추진('23~)

- **중소**(50인 미만) · **비수도권 식품제조업체**의 **외국인력 고용 한도**를 각각 **20% 상향**(중복 가능), 총 고용 허용 인원 내 **신규 고용 허가 한도 폐지**

내국인 피보험자 수	총 고용 허용 인원			신규 고용 허가 한도	
	현행	중소 or 비수도권	중소+비수도권	종전	개선
1~10인	9명	**10명**	**12명**	4명	**폐지**
11~50인	15명	**18명**	**21명**	5명	
51~100인	17명	**20명**	**23명**	6명	

- **방문취업 외국인**(H-2)의 취업 허용업종을 **'음식점 및 주점업' 전체**로 확대하고, **재외동포**(F-4)의 **음식점업 취업제한 해제**

- **외국인 유학생**(D-2)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연장* 검토(법무부 협조)

* 학사·전문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확대(최대 25시간 → 30)

○ **(전문인력)** 푸드테크 · 그린바이오 **계약학과, 그린바이오 특수대학원**('24~)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

- **대학 벤처연구팀**('22: 3개 → '27: 9) 지원 확대로 **식품분야 창업 활성화**

< 사례 :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을 통한 기업 기술애로 해소 >

▸ '20년부터 식품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중

* ('20) 2개교, 40명 → (21) 4개교 75명 → ('22) 4개교 78명

▸ 서울대는 ㈜네오크레마에서 생산 중인 '비건육포'의 맛 개선을 위해 식물성 조직단백(TVP)과 첨가물의 최적 배합비 및 제조공정을 개선하여 단백질 함량은 높고 나트륨 함량은 낮춘 신제품 개발 지원

○ **(생산인력)** 식품·외식기업에 **청년 인턴 채용 비용** 일부를 지원, 식품산업에 청년 고용 확대 기반 구축

* '22년 57개 기업에 청년 인턴 303명 지원, 이 중 총 289명(95.4%) 이 정규직으로 채용

□ **(경영지원)** 식품·외식기업에 대한 **자금·원재료·R&D** 지원 강화

○ **(자금) 원료매입·시설현대화** 자금 융자 지원 확대('23, 1,446억원)

- 지역 상인회 등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('23, 1.5억원), 외식업체에 지역 농산물 구매 지원('23, 3.2억원) 병행 추진

○ **(원재료)**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, **해외농업 개발**과의 연계 강화, **할당관세** 적용('23.5 기준, 33개 품목), **계약재배** 등 지원 확대

- 「**해외농업산림법**」**개정**을 통해 해외 농업 개발 추진시, **식품 원료 조달 목적의 해외 진출 허용**('25~)

* (현행) 개발 대상자원이 농산물(바이오에너지 원료 포함)·축산물로 제한 → (확대) 농산물 가공품 및 식품으로 확대(예 : 식용유, 대두박 등)

○ **(R&D)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** 등 **신식품 산업 육성, 식품 소재 국산화, 품질·안전성 제고** 등을 위한 R&D 지원 강화('23, 380억원)

< 사례 : '더플랜잇'의 식물성 유제품 XILK(씰크) >

▸ '19~'21년 동안 총 7억원의 식품 R&D 사업을 지원받아 신품종 콩(하영콩*)을 활용한 새로운 단백질 추출·배합 기술을 개발하여 '식물성 우유' 출시('22년 아기유니콘 기업으로 선정)

* 콩의 비린맛과 알레르기, 소화불량 물질을 제거한 신품종

5-2.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

□ **(국내기반 조성)** 식품기업의 **ESG 공시 의무**('21~, 금융위)* **대응**을 위해 **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, 교육·홍보 등** 지원

① 기업지배구조 보고서(G) : ('19) 자산 2조원 이상(식품기업 11개사) → ('22) 1조원(17개사) → ('24) 5,000억원(22개사) → ('26) 모든 상장사(36개사)

② 지속가능경영보고서(E·S·G) : (~'24) 자율 → ('25) 자산 2조원↑(11개사) → ('30) 모든 상장사

○ **(실태조사)** 식품기업의 ESG 경영 현황, 취약 분야 등 조사('23~)

- 기업별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**체크리스트*** 개발·제공

* 우선,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, 향후 식품 분야 자가진단시스템 개발

○ **(가이드라인)** ESG 경영 공시 자료 작성 방법, 중소 협력사 관리 매뉴얼,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한 **'ESG 경영 가이드라인' 마련**('24, 산업부 협조)

- **'식품기업 ESG 포럼**(식품산업협회 주관)**'을 운영**하여 ESG와 관련한 기업의 **정책 수요를 지속 발굴**하고, ESG 경영 **우수사례를 공유**

* **ESG 관련 정책지원 필요부문 조사 결과(대한상의, '23.1월)** : ①ESG 가이드라인 제공(39.3%), ②진단·실사·컨설팅(28.0%), ③세제지원(24.0%), ④전문인력 양성(20.7%), ⑤금융지원(20.7%) 順

○ **(교육·홍보)** 중소식품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 교육 추진 검토('24~)

□ **(글로벌 대응)** **EU 공급망 실사법** 등에 대한 식품기업의 대응력 강화

○ **(컨설팅)**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**수출기업 및 협력사**를 중심으로 **ESG 경영 컨설팅 지원**('23~, 산업부 협조)

- ESG 컨설팅이 가능한 국내외 전문가 풀(Pool)을 구성하여 기업에 제공

○ **(탄소 감축 연구)**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**탄소 감축 방법론 개발**, 기술 실증, 기업 활용 교육 등 지원('24~)

5-3.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 확대

□ **(문화기능)**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**'식품 복합 문화단지'**로 육성

○ **식품 문화 체험시설*** **조성**으로 미래 세대에 식품 **교육·체험** 기회를 제공,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 제고

* 미래식당 체험관, 스마트팩토리, VR 체험관, 식품 테마 놀이공간 등

○ 입주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**해외 바이어 초청, 홍보 등** 강화

□ **(거점기능)** 전국 산업단지 소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

○ 지역 대학·연구소 등을 산업단지(1,257개)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연결하는 **'현장지원센터'**로 **지정, 기업 애로 해결**('23~)

○ '현장지원센터'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온·오프라인 지원 기능*을 기업에 연결('23~)

*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(12개소) 활용,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등

< 사례 : '강원' 지역 '현장지원센터' 운영 >

▸ **(지원센터: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)**
지역 대학·기업 등과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업 애로 과제 해결

▸ **(협업기관: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, 한림대학교 등)**
기업 애로과제 협업, 시제품 제작·품질 검사, 인력양성 지원

▸ **(수요기관: 기업)** 신제품 생산·판매, 일자리 창출

□ **(발전방안 수립)** 식품기업 및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등에 대해 연구하여 **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**('23)

5-4. 식품 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

◈ 식품 안전관리 강화, 정보제공 확대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 산업으로 성장

□ **(안전 관리)** 생산단계별 **안전한 식품 공급체계** 구축

○ **(농산물)** 농약 잔류 허용기준 **부적합 품목 관리 강화**('23~)

- 부적합 발생률이 높은 시·군 중심으로 농약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 및 작목반 대상 **농약 안전관리 교육** 집중 추진

○ **(축산물) 축산물 PLS 도입**('24), 도축·집유 단계 온도, 세척 등 위생·안전 모니터링 자동화를 위한 **스마트 HACCP** 도입 추진('24~)

○ **(가공식품) 스마트 HACCP·GMP*** 등 스마트 제조 안전 관리 지원 강화,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**'식품기업 안전 경영 비전 선포식'** 개최('23~)

* 건강기능식품 생산 全 과정의 위해요소 및 원료·성분·함량 등 제품 품질 검증

□ **(소통 강화)** 식품 관련 **소비자 정책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** 등 추진

○ **'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**('23~, 12개 단체)'를 통해 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 참여 활성화

-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식품정책에 대한 **대국민 인지도, 농식품 소비실태, 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** 등 추진

○ 식품 원재료·영양·조리법·생산이력정보 등의 내용을 담은 **QR 코드 도입 활성화**로 소비자에게 상세 정보제공('23~, 식약처 협조)

< 사례 : 식품 정보 QR코드로 제공 >

▸ 식품 표시사항(영양성분·원재료 등), 조리법, 생산이력정보 등 제조~판매까지 단계별 상세 정보를 QR코드를 통해 제공

▸ 현재 6개 社 13개 제품*에 '스마트 QR' 도입 중

* (농심) 컵라면 2종, (매일유업) 조제분유 3종, (대상) 장류 2종 등

▸ 식품기업은 포장재 표시 간소화로 원재료 변경 등에 따른 포장재 교체 부담↓

Ⅵ. 추진체계

□ **(거버넌스)** 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식품산업 진흥

○ 식품 관련 유관기관 간 전문 역량의 연계·결합에 집중

< 분야별 산·학·관 협력체계 >

푸드테크·그린바이오	▸ **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**('23.2), **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**('23.3), **각 협의회 별 분과위원회***(푸드테크 6개, 그린바이오 6개) 구성.운영 중 * (푸드테크) 총괄, 대체식품, 맞춤형·특수식품, 간편식, 생산공정기술, 외식서비스 (그린바이오) 종자, 동물용의약품, 미생물, 곤충, 천연물, 식품소재
수출	▸ **K-Food+ 수출 확대 추진본부** 및 **분과위원회***(5개) 구성.운영 중('23.1) * 농식품, 스마트팜, 농기자재, 동물용의약품, 해외농업기반시설
한식	**'국내' 한식 진흥** : K-미식벨트 조성 등 (한식진흥원, 지자체) + **'해외' 한식 진흥** : 우수 한식당 지정, 한식 소스 개발 (한식진흥원, 국가식품클러스터) → **식재료 수출** (aT, 한식당협의체, 한식진흥원)
외식	▸ **'외식산업 발전포럼*'** 중심으로 외식산업 혁신 방안 추진 * 외식경영연구원, 외식산업협회, 프랜차이즈산업협회, 학계, 기업 등
농업 연계	**기업 원료 수요 DB** (식품산업협회) + **농가 원료 공급 DB** (농협, 지자체, 품목단체) → **매칭·우수사례 발굴** (aT)
전통식품	**김치**: **생산 고도화** : 종균개발, 생산공정 자동화 (세계김치연구소) → **소비기반 확대** (김치협회, 소비자단체) → **수출 확대** (aT, 한식진흥원) **전통주**: **산업 육성** : 창업, R&D, 교육 등 (한국식품연구원, 한국가양주연구소) → **국내 소비기반 확대** (전통주 갤러리, 지자체) → **수출 확대** (aT, 한식진흥원) **장류**: **산업 육성** : 종균개발 및 보급, 소스산업 연계 등 (발효미생물센터, 국가식품클러스터) → **문화 가치 확산** (한식진흥원, 지자체) → **수출 확대** (aT)

□ **(법 · 제도) 신산업 분야** 육성을 위한 **법 · 제도 기반 마련**

○ 미래 유망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**「푸드테크 산업 육성법」, 「그린바이오 산업 육성법」** 제정('23)

○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,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 등 **新식품 관련 제도 정비**('23~, 식약처 협조)

□ **(통계기반)** 식품산업 관련 **통계생산 및 정보제공 체계**를 정비하여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

○ **(통계생산)** 푸드테크 · 그린바이오 등 **新산업 분야 통계 신규 구축, 기존 통계분류체계 정비, 시장 트렌드 조사** 수시 추진 등('23~)

- **(신규통계 구축) 푸드테크, 그린바이오** 산업을 **국가승인통계**로 지정 추진

* 조사대상(모집단), 표본추출, 분류체계, 조사항목·방법 등을 구성, 통계청에 지정 신청

- **(통계분류체계 정비)**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**식품산업 분류체계를 통일**하여 통계 활용도 제고

* 통계청 '한국표준산업분류'는 식품산업을 55개로 분류하는 반면, 식약처 '식품공전'은 식품산업을 246개로 구분하고 있어 통계 간 비교·분석에 한계

- **(트렌드 조사) 식품업계 수요** 등을 바탕으로 품목별 **시장 트렌드를 수시로 조사**하여 식품기업 경영에 유용한 정보제공

○ **(정보제공)** 식품 관련 통계*를 식품기업 및 연구기관의 이용 편의를 위해 가공하여 **식품산업정보통계시스템**(FIS)을 통해 통합 제공('24~)

* 식품 관련 국가승인통계 보유 현황: (농식품부) 8종, (통계청) 15종, (식약처) 6종

< 식품 관련 주요 통계 통합 제공 체계(안) >

식품산업정보통계시스템(aT)

농식품부	통계청	식약처
식품산업 원료소비실태조사	경제총조사	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
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	전국사업체조사	건강기능식품산업현황
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	광업제조업조사	수입식품 현황

붙 임 과제별 추진 일정

연번	추 진 과 제	주관 (협조)	일정
1. 첨단기술을 통한 식품산업 성장 도모			
(1) 지역~세계로 푸드테크 산업 확산			
1	'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' 지정·육성	농식품부 (지자체)	'24~
2	'K-푸드테크 글로벌센터' 설치 등 해외 진출 지원	농식품부 (aT, 중진공)	'24~
3	자금, R&D, 판로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추진	농식품부 (농금원, 농진원)	'23~
(2) 그린바이오 기술의 식품 분야 적용 확대			
1	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2	고령친화식품 등 개발 지원	농식품부	'23~
3	기능성식품 등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	농식품부	'23~
2. K-Food의 경쟁력 강화			
(1) K-Food 수출 확대			
1	수출 유망품목·품종 발굴·육성	농식품부 (aT)	'23~
2	국내외 저온 물류·유통체계 구축	농식품부 (aT)	'23~
3	최우선 전략국 선정,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신규시장 개척	농식품부 (aT)	'23~
4	수출기업 대상 자금지원 확대	농식품부 (aT)	'23~
(2) 국내 미식관광 활성화 및 한식 홍보 강화			
1	국내 K-미식벨트 조성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'23~
2	해외 우수한식당 지정 확대 및 국산 식재료 공급망 구축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'23~
3	스타셰프 발굴·육성 및 글로벌 미식행사 유치	농식품부	'23~
4	「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」 수립	농식품부	'23

(3) 외식서비스 품질 제고			
1	외식 서비스 등급제 도입 및 푸드테크 적용	농식품부	'23~
2	외식기업 해외 진출 지원 강화	농식품부 (aT)	'23~

3.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

(1)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로 종주국 위상 제고			
1	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 및 배추·무 우수 품종 개발	농식품부 (농진청)	'23~
2	김치 생산 자동화 공정 도입	농식품부 (김치연)	'23~
3	김치 종균 개발 및 보급 확대	농식품부 (김치연)	'23~
4	수출국 맞춤형 김치 제품 및 장기 유통기술 개발	농식품부 (김치연, aT)	'23~
5	미래 세대 교육·체험 기회 확대	농식품부 (김치협회)	'23~
6	김치 품질·위생 제고 위한 제도 개선	농식품부 (식약처)	'23~

(2) 전통주 산업 도약 기반 조성			
1	명주 개발을 위한 자금·교육·R&D·판로 지원 등 추진	농식품부 (aT, 한식연)	'23~
2	'전통주 등'을 지역 문화 관광상품으로 육성	농식품부 (지자체)	'23~
3	프리미엄화, 한식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주 수출 확대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, aT)	'23~
4	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「전통주육성법」 개정 검토	농식품부	'23~
(3) 전통 장류를 소스 산업으로 육성			
1	우수 종균 개발·보급	농식품부 (지자체)	'23~
2	전통 장류 활용 소스 개발·시제품 생산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3	식품명인 계승·발전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	농식품부 (한식진흥원)	'23~

4. 식품산업과 농업 간 연계 강화

(1) 농업-기업 간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			
1	식품기업-농가 간 계약재배 위한 '원료중계 플랫폼' 구축	농식품부 (aT, 식품산업협회)	'23~
2	식품 원료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DB 구축	농식품부 (농진청, 식품진흥원)	'24~
3	식품 소재·반가공 산업 활성화	농식품부	'23~

(2) 국산 원료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		
1	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	농식품부	'23~

5.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 공고화

(1) 식품·외식 기업의 경영 안전망 확충			
1	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및 전문인력·생산인력 지원	농식품부 고용부, 법무부	'23~
2	자금·원재료·R&D 등 경영지원 강화	농식품부, 기재부	'25~

(2) 식품기업의 ESG 경영 지원			
1	식품기업 'ESG 경영 가이드라인' 마련	농식품부 산업부 (식품산업협회)	'24
2	식품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	농식품부 산업부 (식품산업협회)	'23~

(3) 국가식품클러스터를 '식품 복합 문화단지'로 육성			
1	식품 복합 문화단지 육성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4~
2	전국 산업단지 소재 식품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	농식품부 (식품진흥원)	'23~
3	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	농식품부	'25~

(4) 식품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			
1	생산단계별 안전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2	식품 관련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
6. 추진체계 구축

1	산·학·관 기능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	농식품부	'23~
2	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법·제도 기반 마련	농식품부, 식약처	'23~
3	식품산업 통계 기반 구축	농식품부, 통계청, 식약처	'23~